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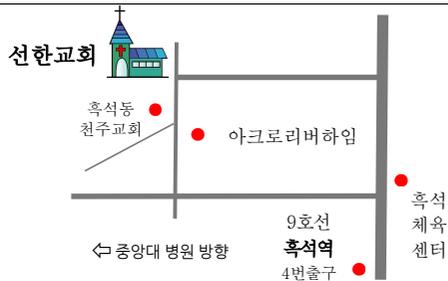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2: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력 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박 희 태, 유 신 웅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31)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 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 독 문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찬 양 과 경 배 421장 (통일찬송가 210장)

기 도 합심기도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15장 20 ~ 34절

설 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잠언 강해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10월 17일 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1. 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1시에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2. 주중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1독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통 28)

본문 :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
실지니이다 하고"*

욥기의 제목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욥기는 경건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기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에서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 내용의 대부분은 욥이 겪는 고난과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 말하고 항변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실상 욥기의 마지막까지도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 욥의 고백과 행동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욥기의 주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고백은 단순히 사라진 것에 대한 체념이나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욥이 평소에도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늘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믿는 자들을 향한 사탄의 목표가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찬양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목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고전15:20-34)

서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것임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본론

1. 부활의 순서

- (1) 아담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를 대비함(22절)
- (2)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게 됨(23절)
- (3) 부활을 변호하기 위한 두가지 질문:
 - ① 죽은자들을 위한 침례(29절) ②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30절)
- (4) 부활을 믿는다면 '속지말고'(33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34절)

2. 교훈

- (1)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성도들도 부활할 것임을 확신하는가?
- (2) 부활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 (3)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론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합심기도	윤호중 장로

매일 Q.T.		고난 중에 시인하는 복과 화의 주권자	날짜 : 10월 4일
찬양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본문	욥기 2:1-13		
말씀요약	하나님이 또다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뼈와 살을 치시면 하나님을 욱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욥을 치니 그의 발바닥에서 경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습니다. 세 친구가 위로하려고 와서 밤낮 7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목상질문 1	욥의 몸을 공격하는 사탄 2:1-10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9절)라는 아내의 말에 욥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욥과 같은 고백을 하며 내가 겸손히 받아들일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세 친구의 방문 2:11-13 욥을 방문한 친구들이 욥을 보고 취한 행동은 어떠했나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한절목상	욥기 2장 4절 사탄은 또다시 욥을 참소합니다. “가족은 가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새번역 성경) 소유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에는 흔들릴 것이란 논리입니다. 사람은 소유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을 저버리거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를 저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경건을 흔드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참된 경건은 소유와 생명의 문제조차 하나님 주권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시련과 마주할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떤 순간에도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피어 하나님의 위로와 눈물로 함께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고난 중에 빛나는 욥의 신앙”	
찬양과 기도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 357, Eb→E) 나를 지으신 주님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결국 이 모두를 뺀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고통은 극히 적은 부분일 뿐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는 즉시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윌리엄 폴 영이 자신의 여섯 자녀에게 선물하기 위해 쓴 책 「오두막」은 오늘날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사랑하는 딸을 유괴범에게 잃은 후 세상과 신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던 맥에게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정체불명의 ‘파파’로부터 온 편지는 딸을 잃었던 그 오두막으로 맥을 초대하고, 그곳에서 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 갑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예기치 않은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 나누기	욥기 2:1~13		
목상포인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자신이 겪는 힘든 상황도 모두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겨운 환경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 죄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분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사탄은 욥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4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끊어져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사탄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기도			

매일 Q.T.		주관적 계시 경험은 분별해서 적용하십시오	날짜 : 10월 8일
찬양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본문	욥기 4:12-21		
말씀요약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한 영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며 들려준 목소리를 욥에게 전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도 미련하다 하십니다. 그러나 흠집에 사는 사람은 더욱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엘리바스의 계시 경험 4:12-16 엘리바스의 계시 경험은 그의 주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주관적 계시 경험에 근거해 나의 논리와 주장을 확신하며 전달한 적은 없나요?		
목상질문 2	인간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 4:17-21 엘리바스가 들은 계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가 받은 주관적 계시 경험을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절묵상	<p>욥기 4장 18절</p> <p>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나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있습니다. 제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미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물며 흠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 된 모습 그대로 아픔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쏟아 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탄식과 아픔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 행위입니다.</p>		
적용			
오늘의 기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제게 십자가 구속으로 완전한 길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연약하고 허무한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값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니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지만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매일 Q.T.		고통 속의 탄식, 태어남을 저주함	날짜 : 10월 5일
찬양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본문	욥기 3:1-10		
말씀요약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흑암에 덮였더라면,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고 동이 트지 않는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자기 눈으로 환난을 보게 했다며 한탄합니다.		
목상질문 1	입을 열어 탄식하는 욥 3:1-2 욥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통 가운데서 나는 '침묵하는 자'인가요, '말하는 자'인가요?		
목상질문 2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욥 3:3-10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임태된 밤'을 저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랜 고통 속에서 내 출생의 의미와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절묵상	<p>욥기 3장 2절</p> <p>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던 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거칠고 조급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은 아닙니다.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난에 대한 탄식이자, 흠 없이 경건한 생애 앞에 갑자기 펼쳐진 깊은 어둠을 마주한 당혹스러움에 대한 탄식입니다. 성도의 경건은 '인내하는 욥'과 '조급한 욥' 사이 어딘가에 자리합니다.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p>		
적용			
오늘의 기도	하루를 살아 내는 것이 너무 벅차고, 내일이 고통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날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매일 Q.T.		고통 속의 탄식, 죽음의 세계를 동경함	날짜 : 10월 6일
찬양	찬송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본문	욥기 3:11-26		
말씀요약	욥은 자신이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오지 않은 것을 한탄합니다. 그랬더라면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는 숨은 보배를 찾기보다 죽기를 더 바라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기뻐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평온과 안일과 휴식은 없고, 불안만 있다고 호소합니다.		
목상질문 1	탄원의 질문 3:11-19	욥이 묘사하는 죽음의 세계는 어떠한 곳인가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질 만큼 힘들 때 나는 주로 어떻게 행동하나요?	
목상질문 2	왜 빛과 생명을 주셨는가 3:20-26	욥이 느낀 하나님의 이중적 행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때로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절묵상	<p>욥기 3장 20절</p> <p>욥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기에 수많은 '어찌하여'를 쏟아 냅니다. 자신이 마주한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없기에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욥의 '어찌하여'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어찌하여'라는 것이 이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의 '어찌하여'에 초대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서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신앙입니다.</p>		
적용			
오늘의 기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웠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평온과 안식이 사라진 현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제 삶을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제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날짜 : 10월 7일
찬양	찬송가 380	나의 생명 되신 주	
본문	욥기 4:1-11		
말씀요약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욥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는데, 자신이 고통을 당하니 힘들어하고 놀라서 당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으며, 악과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고 교훈합니다.		
목상질문 1	욥의 태도에 대한 비판 4:1-6	엘리바스가 회상하는 욥의 과거 모습은 어떠했나요? 남의 일은 잘 해결해 주면서 정작 자기 일은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목상질문 2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4:7-11	엘리바스의 확신에서 배울 점과 지양할 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현재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의 선과 악을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p>욥기 4장 2절</p> <p>엘리바스는 밤낮 7일을 침묵하며 욥과 함께할 정도로 욥의 고난을 아파하며 공감했습니다(2:13). 그러나 욥이 고통 가운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3장)을 듣자 참지 못하고 입을 엽니다. 결국 욥을 위로하기보다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 냅니다. 성도는 충고나 권면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는 인간적 충고나 권면은 자칫 '위로'라는 명목으로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p>		
적용			
오늘의 기도	선부른 제 판단과 충고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돌아봅니다. 너무 쉽게 해결책을 내놓고, 은연중에 그들을 정죄했던 제 악한 모습과 생각을 용서하소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 마음 모아 조용히 기도하게 하소서.		